

비단산골 흐드러진 산벚꽃 50만㎡ 진달래 꽃사태

■ 4월 가볼만한 봄꽃여행 명소

4월의 문턱, 어느덧 봄기운이 추위를 밀어내고 형형색색의 꽃으로 산과 들을 수놓고 있다. 겨우내 힘들었던 구제역의 여파로 봄꽃 축제들이 취소됐었지만 피어나는 꽃들까지 막지는 못했나 보다. 완연한 봄, 코끝을 적시는 봄꽃향기를 따라 옷차림만큼이나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봄을 찾아 나서보자.



영취산 진달래

흔히 만나볼 수 있는 벚꽃들이 풍성하고 화려하다면 산골에 피어나는 산벚꽃은 수줍은 듯 소담스런 모습이다.

서대산 자락, 뒤늦게 꽃망울을 터뜨리는 이곳 산벚꽃은 소박한 멋이 있다. 4월이 무렵이면 총남 금산군 군북면 보곡산골에 산벚꽃도 그 멋이 더해진다.

군북면 보곡산골은 산이 수려한 금산의 서대산 끝자락에 위치한 외딴 마을, 서대산 아래 보광리, 상곡리, 산안리 등 3개 오지마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었다.

3월초까지 얼음이 어는 산골마을은 4월이 되면서 봄빛으로 색을 바꾼다. 보곡산골은 국내 최대의 산벚꽃 자생 군락지 중 하나로 600만㎡의 산자락에 산꽃이 피어난다. 보곡산골의 주변은 벚꽃이지만 조팝나무, 진달래, 생강나무 등도 이곳을 봄기운으로 가득 채운다.

보곡산골, 600만㎡ 산꽃 군락 장관

장흥 제암산, 철쭉 꽃터널에 매혹

여수 영취산, 동서남북 분홍 천지

보곡산골에서 남쪽 고개를 넘어서면 조팝나무 군락지와도 연결된다.

기운이 4~5도 낮은 산골이라 꽃들이 피어나는 시기가 다른 곳보다 한 템포 늦다. 만개한 꽃들이 저물어가며 아쉬움을 더할 때 이곳에는 꽃 잔치가 벌어진다.

마을 뒤에는 비포장 임도와 원터가 조성돼 있어 길을 따라 걸으며 느긋하게 꽃구경에 취할 수 있다.

길 중간 중간에는 '봄채너 정자', '보이네요 정자' 등이 방문객들을 기다린다. 한숨 쉬어가며 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고 삼백년 세월을 간직한 기품 있는 소나무도 만나볼 수 있다.

임도에는 고요한 꽃전국이 펼쳐진다. 산벚꽃은 왕벚꽃만큼 크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묵묵히 초록 안에서 제 빛깔을 낸다. 짙은 황토와 녹음 속에서 두드러지는 꽃들이라 더욱 싱그

럽다. 간식을 싸들고 정자에 앉아 산골 정취에 어우러지면 청량한 공기와 상큼한 꽃향기가 가슴에 와 닿는다.

금산 산림문화타운이 위치한 남이면 건천리 일대 역시 원시 숲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금산의 깊은 산속에서 휴식을 취하려면 남이면으로 향한다. 금산은 전체 면적의 71%가 임야로 구성된 땅. 특히 금산 산림문화타운이 위치한 남이면 건천리 일대는 원시림에 가까운 숲이 잘 보존돼 있다. 선아봉으로 뻗은 등산길과 청정계곡은 봄이 오면 옷땀을 더한다.

남이면의 또 하나의 '보석'은 진악산 기슭에 위치한 보석사다. 아름드리 전나무 숲길과 1100년 수령을 자랑하는 은행나무로 명성 높은 이곳은 절 앞산 중턱에서 금을 캐내 불상을 주조했다고 해서 이름 지어졌다.

먼길 가지 않고도 봄꽃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다. 봄이며 수줍은 듯 또 새 생명을 꽃피우듯 붉은빛으로 물이 드는 장흥 제암산과 여수 영취산이 있다.

철쭉이 유명한 장흥 제암산은 봉우리마다 봄이 되면 붉은 철쭉꽃이 장관을 이루는 곳이다. 산 정상에서 서서 무등산과 월출산, 다도해도 내려다 볼 수 있다.

제암산 기슭에 용추굴이 있고, 이 용추굴에서 2km쯤 오르면 골치 1.4km 절터 1.9km 일립산 2.6km 이정표가 보인다.

곧 바로 계곡을 가로지르는 복교인 용추교를 건너면 보성강의 발원지인 용추폭포가 나온다. 또한 제암산에서 승용차로 한 고개만 넘으면 파란 바다의 절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율포해수욕장 관광지도 있다.

여수 영취산도 봄날 진달래꽃으로 붉게 타오른다.

영취산은 경남 창녕 화왕산, 경남 마산 무학산과 더불어 전국 3대 진달래군락지로 꼽히는 곳. 진달래축제가 열리면 사람들이 몰릴듯 물리는 봄의 대표적인 관광지다.

영취산 동, 남, 북사면은 전체가 진달래로 덮여 분홍빛으로 뒤덮인다. 영취산에는 30년생 진달래가 수만 그루 있는데, 그 규모가 49만5000㎡에 걸쳐 퍼져있다.

정상에 올라 가장 아름다운 영취산 진달래를 만날 수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총남 금산의 서대산 끝자락에 위치해 3월 초까지 얼음이 어는 보곡산골은 4월이면 동네를 에워싼 산자락에 산벚꽃이 피어나 희고 붉은 꽃 세상을 만든다. 이 마을의 산벚꽃은 깊은 오지마을에서 꽃망울을 터뜨려 화사하지만 요란하지 않은 아늑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한국관광공사 제공>



제암산 철쭉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특수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1

2

3

4

시공전 / 단열메이커시공

단열메이커 / 트라이슈머시공

트라이슈머 합리화 시공

옥상 시공 후

특허방수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시트방수

에너지를 높이고

에너지효율등급

1. 여름철에는 전기료 절감 30~40%

2. 겨울철에는 난방비 절감 15~20%

3. 옥상정원을 조성했을 때와 같은 단열효과를 냅니다.

태양열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

겨울철 실내온도 3~5℃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본사 전국모델

탈렌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